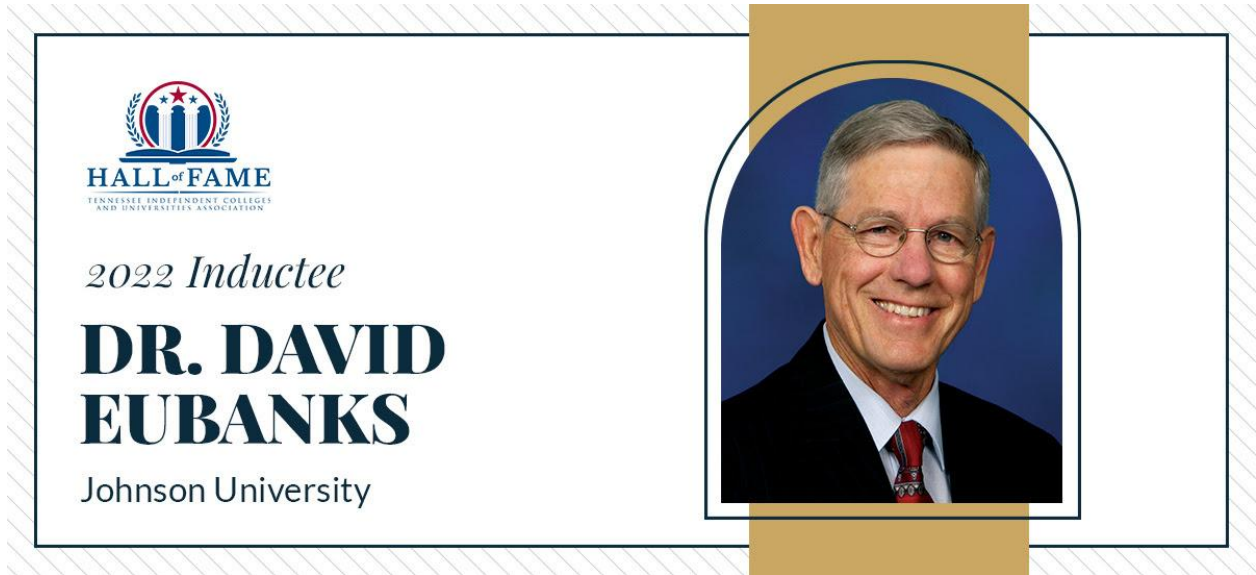


교회의 분열과 의견 문제에서의 자유 (로마서 14 - 15:13)

Division in the Church and Freedom in Matters of Opinion (Romans 14-15:13)

Dr. David L. Eubanks



***데이비드 L. 유뱅크스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와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존슨 대학교의 최장기(1969-2007) 총장을 지냈다. 그의 사역은 테네시주 메리빌에 있는 퍼스트 그리스도인 교회(First Christian Church)에서 시작되었다. 존슨대학교를 졸업(1957)한 후 테네시 대학교 University of Tennessee 에서 역사를 전공하여 Ph.D 학위를 받았다.

Division in the church has been a hindrance to the spiritual and numerical growth of the church almost from the beginning. I suppose that is the reason that Jesus, in his great prayer in John 17, prayed for all who would believe on Him through the testimony of His apostles [that includes us] that we would be united just as He and the Father are one in order that the world would believe that God sent Him. Just think, two millennia ago Jesus, on the eve of His crucifixion, prayed for the unity of the church today. Paul wrote to the Corinthian Church, “I plead with you, brethren,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 . .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I Corinthians 1:10).

교회의 분열은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영적·수적 성장에 방해가 되어 왔다. 아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 장에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된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신 이유일 것이다. 그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약 2 천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오늘날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고린도전서 1 장 10 절).

Sometimes division cannot be avoided. For instance, the Galatian Church was divided because false teachers were teaching false doctrine and bringing false accusations against the Apostle Paul. Paul directed his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against false teachers teaching false doctrine at Corinth and likewise bringing false accusations against Him. All that can be done in the face of this kind of division is face it head on and exhibit the attitudes of Christ in resolving it, which is what Paul did in Galatians and 2nd Corinthians.

때로는 분열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도 바울에게 거짓 비난을 퍼뜨렸기 때문에 분열되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도, 고린도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마찬가지로 그에게 거짓 비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분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Most division in the church in America, however, is not over false doctrine but over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issues that are neither right nor wrong in themselves. One such issue that arose when I was a youth was over whether the Lord’s Supper could be observed any day other than Sunday, the Lord’s Day. Could the Lord’s Supper be observed in a church camp on Friday evening at a closing commitment service? Some people were strongly convicted that such practice was wrong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Scriptural precedent. Others believed it was permissible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Scriptural precedent. How can such conflict be resolved?

그러나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열은 거짓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들 때문에 발생한다.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제기되었던 한 가지 논쟁이 있다. **주님의 만찬을 주일(주님의 날) 외의 다른 요일에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교회 캠프의 마지막 헌신 예배에서 성찬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전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근거로,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확신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경적 전례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근거로, 그것이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That’s what this lesson is all about. Although my primary resource for this lesson is the 14th chapter of Romans, I am also using I Corinthians 8:1-13, 10:23-33; Galatians 4:9-11, 5:1, 13, 14 and Colossians 2:16-22 to supplement my exposition.

이것이 바로 이 강의의 핵심 주제이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된 본문으로 로마서 14 장을 사용하지만,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8 장 1 - 13 절, 10 장 23 - 33 절, 갈라디아서 4 장 9 - 11 절, 5 장 1 절, 13 - 14 절, 그리고 골로새서 2 장 16 - 22 절도 함께 참고하고 있다.

신약 교회의 분열의 원인들

Causes of Division in the New Testament Church

In every area of doctrine where the church has clear command from the Lord or His Apostles, the believer's only valid response is faithful obedience and adherence to God's Word. In all other matters Christians are free to follow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ir own consciences. One such nagging controversy in the early church involved certain food, which some members could not eat in good conscience, but which others could enjoy without misgiving. For Jewish Christians the problem generally arose over meats that had been unclean for them under Mosiac Law, and for Gentile converts it concerned meat that had been offered to idols and later found itself on their plates through purchase at the market or the hospitality of friends.

주님이나 사도들로부터 **명확한 명령**이 주어진 교리의 모든 영역에서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가 있다.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 중 하나는 **음식 문제**였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양심에 걸렸지만, 다른 성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세 율법 아래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었던 고기(역자: 유대교의 카슈룣/카샤룣 음식법, כַּשְׁרוּת, Kashrut)**가 주된 문제였다. 반면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역자: 신전에서 정육점에 유통시킨 제물)**가 문제였다.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친구의 식탁에서 대접받는 과정에서 그런 고기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A companion controversy centered in certain religious feast days, possibly Jewish and Gentile, which were neither prescribed nor proscribed by apostolic command. Some Christians felt, nonetheless, compelled to keep these rituals, while others did not.

어떤 종교적 절기들—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각각 관련된 절기들—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있었다. 이 절기들은 사도적 명령에 의해 지키라고도, 지키지 말라고도 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느꼈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Still another such conflict arose over whether Jewish Christian parents had to circumcise their son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or, more problematic, whether Gentile men and their sons had to be circumcised, according to law, to be saved.

또 다른 갈등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들을 반드시 할례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방인 남성과 그들의 아들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일어났다.

In Romans 14 and the other texts that I have cited the Great Apostle Paul provides us with forceful declarations on freedom of conscience in areas of opinion and clear lessons on the conduct of believers toward one another over such issues. How wonderfully he joins the twin virtues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Christians and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로마서 14 장과 내가 언급한 다른 본문들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의견의 영역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제공한다. 그는 개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얼마나 훌륭하게 결합시키는지 보여준다.

개인의 의견 vs. 그리스도인의 자유
Private Opinion vs. Christian Liberty

Underlying all of Paul's teaching on this subject was the fundamental truth that no opinion of men could be joined with the gospel terms as necessary for salvation and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To the Galatians and Colossians he clearly affirmed that adding any requirements beyond those that he had proclaimed was false doctrine, heresy, and a denial of justification by faith in Jesus Christ.

바울의 이 주제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기저에는, **사람의 어떤 의견도 복음의 조건에 더해져 구원이나 교회의 교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근본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과 골로새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것 외에 어떤 요구 사항을 더하는 것은 거짓 교리이며, 이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Paul would never have offended the conscience of a Jewish convert who still felt compelled to circumcise his son and observe certain rituals of the Old Testament law, even though they were not binding on Christians. At the same time, the "Apostle of Freedom" firmly denied and opposed the teaching of Judaizers to Gentile Christians in Galatia that circumcision and adherence to the law of Moses were necessary to their justification. He admonished them not to controvert the gospel by succumbing to the legalistic opinions of men, but to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s made us free, and do not be entangled again in

the yoke of bondage” (Galatians 5:1). Freedom in Christ demands that His terms alone, free of men’s opinions, be necessary for salvation and fellowship.

바울은 구약 율법의 특정 의식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어떤 율법적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결코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유 의 사도”는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가 칭의에 필요하다고 가르치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부정하고 반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사람의 율법주의적 의견에 굴복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1)고 권면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조건만이** 구원과 교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구한다.

Beyond affirming that the opinions of men had no part in the gospel of salvation, Paul had many things to write about the Christian’s right of private judgment. What he did write deals with one’s relationship to Christ and to other Christians. Christian freedom in nonessentials carries with it both individual and corporate responsibilities.

사람의 의견이 구원의 복음에 어떤 부분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외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개별적 판단의 권리**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했다. 그가 기록한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모두 수반한다.

The necessary personal responsibility of each individual i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his own conscience. Conduct in an area of opinion may be neither right nor wrong in itself, but it is wrong to those who think it so. The New Testament prohibits any conduct if one merely has doubts about its correctness. Anyone who persists in a certain activity in the face of such doubts acts without faith, his conscience condemns him, and he sins. Paul’s simple instruction is that one is to “be fully persuaded in his own mind” (Romans 14:5). The first arbiter of conduct in areas of opinion is not what is convenient nor what is popular, but the sincere dictates of one’s own conscience.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개인적 책임은 **자신의 양심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다. 의견의 영역에 속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잘못이 된다. 신약성경은 어떤 행위가 옳은지에 대해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이며, 그의 양심은 그를 정죄하고, 그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울의 단순한 가르침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5)는 것이다. 의견의 영역에서 행위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편리함도 아니고 대중적 인기 여부도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진실하게 명하는 바**이다.

Another vital personal rule of Christian living in a question of private judgment is that the believer's freedom of thought and conduct be pursued within the will and to the glory of God. One can hold or reject a particular view, and participate in or refrain from a given activity, all to His glory. Whether we eat a certain food or refrain from it for conscience's sake, we should and can do so "unto the Lord" (Romans 14:6, I Corinthians 10:31). A proper personal relationship to Christ leaves no room for self-will or self-glory, even in the exercise of Christian freedom.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판단의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원리는, 신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혹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삼가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할 수 있다. 양심을 따라 어떤 음식을 먹거나 혹은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로마서 14:6, 고린도전서 10:31).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개인적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문제에서도 **자기 의지나 자기 영광이 끼어들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Our Responsibility to Other Christians

Interestingly enough, most of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right of private opinion goes beyond personal matters and treats our responsibility to others. That responsibility, clearly stated more than once in Paul's writings, is not to please ourselves, but to pursue a course that edifies, harmonizes, and unites. In the exercise of our freedom of opinion the unity of the church is maintained when love prevails among us.

흥미롭게도, 신약성경에서 개인적 의견의 권리에 관한 가르침의 대부분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그 책임은 바울의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분명히 제시되는데, 그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조화를 이루며, 연합을 이루는 길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의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우세할 때 교회의 일치는 유지된다.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in the same context in which Paul urges upon the Galatians their freedom from the legalistic judgment of the Judaizers he admonishes them to exercise that freedom in love. "For you, brethren, have been called unto liberty; only do not use liberty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Galatians 5:13). That he practiced what he preached is evident from his testimony to the Corinthians: "For though I am free

from all men, I have made myself a servant to all. . . .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that I might by all means save some” (I Corinthians 9:19, 22).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 판단에서 벗어난 자유를 강조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 그는 동시에 그 자유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고 권면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13).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실제로 실천했다는 사실을 고린도인들에게 한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19, 22).

심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이다
Judging is God's Prerogative, Not Ours

Love is served and unity preserved when Christians refrain from judging one another in matters of opinion. The tendency of those who are bound more by scruples over nonessentials is to criticize and condemn those who are inclined toward greater freedom in those areas. The tendency of those who are more broadminded in such matters is to assume an attitude of sophistication and look down on, even ridicule, more narrow-minded Christians. There is no place for either attitude in the church. The New Testament condemns both the unfair criticism by the scrupulists and the haughty contempt of freer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이 의견의 문제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실천되고 일치가 보존된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양심적 거리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더 성숙하다고 여기며, 보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내려다보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느 쪽 태도도 설 자리가 없다. 신약성경은 지나치게 엄격한 이들이 보이는 부당한 비판도, 더 자유로운 이들이 보이는 교만한 경멸도 모두 정죄한다.

The Apostle Paul appropriately points out that Jesus Christ is the Master of His household, the church, and He is the judge of its members. It is neither the privilege, prerogative, nor responsibility of any person to go into another man's house and presume to exercise lordship, determining whether that man's servant has his approval or not. Likewise, no Christian has the right to assume the place of Christ and judge another child of God, especially in nonessentials (Romans 14:4, 10). Judging of fellow Christians is a serious offense, fraught with incipient division, to be avoided on every hand.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 곧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구성원들의 심판자이심을 적절하게 지적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며, 그 집 종이 주인의 인정을 받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드는 것은 특권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며, 책임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특히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로마서 14:4, 10).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일은 심각한 잘못이며, 분열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

The New Testament also forbids believers, especially the more mature ones, from arguing with less mature Christians over their convictions about private opinions. The Apostle Paul asked the “strong” believers at Rome to receive warmly and treat with affection and esteem their “weaker” members, but not “to disputes over doubtful things” (Romans 14:1), with a view to changing their views on the opinion issues that bothered them.

신약성경은 또한 신자들, 특히 더 성숙한 신자들이 개인적 의견에 관한 확실 문제로 인해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금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강한” 신자들에게, “약한” 형제자매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되, 그들이 마음에 걸려 하는 **의견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거나 그들의 견해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권면했다(로마서 14:1).

Some Christians can be friendly with other believers with whom they disagree over opinions, as long as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change their views. When it becomes evident that they cannot do so, they cool quickly toward those brothers or sisters. Their warm welcome is evidently only based on the selfish motive of convincing the others of the rightness of their opinions.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의견이 다른 신자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만** 그렇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들은 금세 그 형제나 자매에게서 마음이 식어 버린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는 결국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상대에게 설득하려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다.

Such treatment of one another in Christ is far from the course proposed and practiced by the Apostle Paul. He may have pointed out to other Christians that their scruples over a nonessential matter were baseless in Scripture, but he would never have argued to change their convictions unless they were trying to bind their views on others. In fact, Paul contended, again especially to the more mature Christians, that faith concerning their personal opinions should be kept between them and God (Romans 14:22). Their personal convictions should not be flaunted before “weaker” Christians.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실제로 실천한 길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양심적 거리낌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그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는 한, 그들의 확신을 바꾸기 위해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았다.** 사실 바울은, 특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 의견에 관한 믿음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로마서 14:22). 그들의 개인적 확신은 “약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과시되어서는 안 된다.

When an issue over opinions arises in the church, the solution is not to be found in insistence on agreement on a given view, but insistence on Christian love. Fellowship among Christians cannot be based on disputing with the purpose of bringing all to a certain conviction about a matter of forbearance. Paul’s advice is still good. “Therefore let us pursue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and the things by which one may edify another.” (Romans 14:19).

교회 안에서 의견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해결책은 특정 견해에 대한 일치를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강요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는 어떤 관용의 문제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확신을 갖도록 논쟁하는 데 기반을 둘 수 없다. 바울의 조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로마서 14:19).

Added to the above New Testament doctrine is the vitally important guideline that Christians should exercise their freedom in opinions with an attitude of strong sensitivity to the consciences of other Christians, especially less mature ones. We have our freedom in Christ, and it is precious, but it is ill used when it causes another to fall into temptation. Paul wrote the Corinthians that they should “beware lest somehow this liberty of yours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ose who are weak” (I Corinthians 8:9).

위의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더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덜 성숙한 신자들의 양심을 깊이 배려하는 태도로 **의견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는 귀중하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데 사용된다면 잘못 사용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런즉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9)고 썼다.

The greatest privilege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not our freedom of private opinion, but, rather, the opportunity to serve one another in love.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Paul wrote,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Romans 14:17). Our Christian freedom may allow us to do a certain thing, but love will forbid it if it causes a brother or sister to stumble. “If f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again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I Corinthians 8:1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큰 특권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가질 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우리의 그리스도인 자유가 어떤 일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만일 그것이 형제나 자매를 넘어지게 한다면 **사랑은 그것을 금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13).

환원운동과 일치

The Restoration Movement and Unity

The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are part of what has been called the Restoration Movement and, more recently, the Stone-Campbell Movement. This was a non denominational movement of individual Christians and churches around the end of the eighteenth and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ies to drop human creeds and return to the Scriptures as the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in order to restore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face of denominational division. The pioneers of this movement developed slogans to capture their call for unity based on Scripture. Some of them were:

- The New Testament is our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 We speak where the Scripture speaks, and we are silent where the Scripture is silent.
-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love.
- [similar] In matters of faith [doctrine] unity; in matters of opinion, liberty, in all things love.
- We are free to differ, but not to divide.

‘그리스도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역자: 미국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명칭/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와 총회에 해당)는 흔히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 혹은 최근에는 *스톤-캠벨 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라고 불리는 흐름의 일부이다. 이 운동은 18 세기 말과 19 세기 초에, 개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교파적 분열에 맞서 **인간이 만든 신조를 버리고,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비교파적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개척자들은 성경에 기초한 일치를 촉구하는 그들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표어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신약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규범이다.

-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침묵한다.
-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
- [유사] 믿음(교리)의 문제에는 일치, 의견의 문제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
- 서로 다를 자유는 있으나, 갈라질 자유는 없다/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However, the Restoration Movement has experienced disputes and some division over opinions. For three quarters of a century the Restoration Movement w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movements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This growth became stymied, however, by division, often over matters of opinion. These disputes did not result from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our early leaders. They championed freedom of opinion in those things not clearly taught in Scripture, but they considered such opinions to be private matters, not to be taught or urged on others.

그러나 환원운동 역시 의견 문제로 인해 논쟁과 일부 분열을 경험해 왔다. 약 75 년 동안 환원운동은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운동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성장은 종종 **의견 문제로 인한 분열로 인해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은 초기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초기 지도자들은 성경에 명확히 가르쳐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의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러한 의견을 개인적 문제로 간주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They refused to establish terms of fellowship beyond those things clearly taught in the New Testament. Their ruling principle was: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love.” Where the Scriptures spoke, they spoke; but where the Scriptures were silent, they believed that freedom of conscience would prevail. They contended, rightly so, that unity can best be maintained and the church grow when faith is stressed and proclaimed and opinions held privately. We have lived to see the correctness of that position and would do well to maintain it for the growth of the Kingdom and the glory of God.

그들은 신약성경에 명백히 가르쳐진 것 이상으로 **교제의 조건을 설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기본 원칙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는 말했지만,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세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믿음이 강조되고 선포되며, 의견은 개인적으로 간직될 때 교회의 일치가 가장 잘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옳았음을 보아 왔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